

빚더미로 시름하는 전남인... '무직' '60대' 채무 상담 급증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올 상반기 상담 건수 2055건·43.5% 증가 무직 채무 상담 1019건 전체 49.6%...60대 575건 28% 비중 차지

불안한 빚을 견디지 못하고 금융복지기관에 기댄 전남도민 가운데 올해 '무직' '고령층'의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가계부채 상담 건수는 20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32건) 보다 43.5% (623건) 급증했다.

채무조정 접수가 완료된 94명이 지난 부채 총액은 204억6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부채는 2억 1800만원에 달했다. 1년 전 평균 부채(7900만원)의 2.8배 수준이다.

올해 채무로 벼랑 끝에 몰린 전남도민의 절반 가까이는 직업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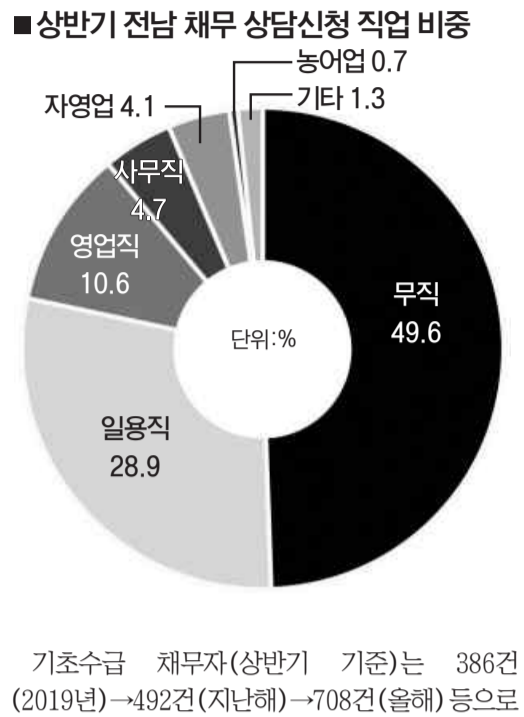
전체의 49.6%에 달하는 1019건이 무직이었고,

일용직 28.9% (594건), 영업직 10.6% (217건), 사무직 4.7% (96건), 자영업 4.1% (84건), 농어업 0.7% (15건), 기타 1.3% (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기준 무직 채무자는 608건(2019년)→699건(2020년)→1019건(올해) 등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무직 상담 신청자는 전년보다 45.8% (320건) 급증했으며, 사무직(123.3%), 영업직(87.1%), 일용직(31.7%), 농업직(16.7%), 자영업(15.1%)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올 상반기 채무상담 신청자 3명 중 1명(34.5%) 꼴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차상위 계층 채무자는 144건으로, 7.0% 비중을 차지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기초수급자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43.9% (216건)나 뛰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 상담 신청이 상당했다.

60대 채무자는 575건으로, 전체의 28%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6.8%), 40대(24.7%), 30대(10.4%), 70대(7.3%), 20대(2.8%) 순이었다.

60대 상담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325건에서 올해 575건으로, 76.9% (250건)나 급증했다.

40대 채무자가 76.4% (220건) 늘어 뒤를 이었고, 30대(74.6% ↑), 70대(17.8% ↑), 50대(13.9% ↑), 20대(-32.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채무 상담 신청자는 남성 55.3% (1136건)·여성 44.7% (919건)로 나뉘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여성 신청자가 남성보다 많았고, 50대-70대는 남성이 더 많았다.

상담 신청자 3명 중 1명(29.0%-596건)은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빚을 지고 있었다.

금액대별로 ▲5000만원~1억원 29.0% ▲1억~3억원 20.0% ▲3000만~5000만원 19.6% ▲2000만~3000만원 10.2% ▲1000만~2000만원 8.9% ▲3억원 이상 5.8% ▲500만원 미만 3.8% ▲500만~1000만원 2.8% 등 비중을 차지했다.

'3억원 이상' 구간이 153.2% (72건 ↑)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1억~3억원' 88.1% (192건 ↑), '5000만~1억원' 58.1% (219건 ↑)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이 완료된 경우 가운데 개인파산은 35건으로, 전년보다 9건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12건에서 19건으로 늘었다. 신용회복은 전년보다 7건 줄어든 22건, 채권협상은 9건 감소한 18건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11개 시·군(고흥·광양·구례·나주·담양·무안·순천·여수·영광·해남·화순) 주1회 출장상담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jnfwc.or.kr) 방문 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1000억 규모 ESG 지속가능채권 발행

녹색금융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등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1000억원 규모 원화 ESG 채권을 발행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ESG 채권은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며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으로 불린다.

이번 발행 채권은 '지속가능채권'으로, 친환경 사업에 중점을 둔 '녹색채권'과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을 위한 '사회적채권'이 혼합된 성격이다.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지속가능채권' 가운데 최고등급인 'ST1' 등급을 받아 채권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도를 높였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사업과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이번 ESG채권 발행을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지침을 충족하는 내부 ESG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ESG 인증적격기관인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ESG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 포용금융과 생산적금융에 주력하고자 지난 4월부터 'ESG팀'과 'ESG 추진위원회'를 잇따라 신설하기도 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향후 탈석탄 정책 추진과 친환경 금융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와 경제 없는 포용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ESG 경영에 따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흥썬밸리 리조트 오션뷰 빌라 오픈



선착순 회원권 모집

썬밸리골프&리조트 그룹은 이달 '고흥썬밸리 리조트' 오션뷰 빌라를 새롭게 오픈하고 선착순으로 회원권 모집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흥썬밸리 리조트'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인 고흥만 일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입지에 도해 절경 등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빌라형 18실 규모의 고흥군 유일 대규모 리조트 단지로 꼽히며, 파노라마 오션뷰를 자랑하는 호텔급 해수사우나와 인피니티 풀에서 오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고흥썬밸리리조트 타워형 상품은 18평·25평·34평 타입(TYPE)으로 구분되며, 분양가는 타입별로 1300만원부터 1950만원 선이다.

비교적 큰 부담 없이 가족들이 입회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회원권으로, 법인들이 선호하는 무기명 상품도 동시 분양 중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달 새롭게 문을 연 오션뷰 빌라는 최근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라이빗 빌라로, 전 객실이 바다를 조망하고 있다. 45평형 규모로 자연을 바라보는 풍광과 빌라의 고급스러움이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빌라형상품은 기명, 무기명 상품으로 출시되며 빌라는 소수구좌만 선착 분양해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회원권은 썬밸리골프&리조트 그룹이 운영하는 설악썬밸리리조트와 여주썬밸리호텔, 여주썬밸리 워터파크, 고흥썬밸리리조트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상담 및 입회문의 전화 1800-5639.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3246.47 (+28.52)
코스닥	1034.64 (+5.71)
금리 (국고채 3년)	1.384 (+0.009)
환율 (USD)	1147.00 (-2.10)

광주전남레미콘협의회 "운송업자 불법파업 강력한 공권력 집행해야"

올바른 노동행정 개입 요구도

광주전남레미콘협의회는 12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장기적인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행정과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했다. <사진>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장기적인 불법파업으로 모든 민수관수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레미콘 제조사의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기에 운송사업자의 불법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행정과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개인사업자인 운송사업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조원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질 수 없음에도 민주노총은 운송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운송비 이외 퇴직금까지 지급하라는 요



구는 정당한 권리 주장을 넘어서서 위법적인 행위인 만큼 올바른 노동행정 개입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협의회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집행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14일 이후 레미콘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거부하며 공장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부득이 업무방해와 교통방해로 고소했으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며 "영광지역 레미콘 제조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과 가족 300여명은 불법파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영광지역 운송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지역민에게 큰 어려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상생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운송비 인상 문제를 타결해 정상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창호씨가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